

■ 주요 뉴스: 미국 3월 고용 및 2월 물가지표, 연준의 통화긴축 강화 유도 여부에 관심

- 미국 바이든 대통령, 억만장자에 대한 20% 부유세 신설 검토
- ECB 총재,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로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연결되지 않을 전망
- UNCATD, 신흥국의 부채 위험 증폭 가능성을 경고

■ 국제금융시장(주간): 미국은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 가능성 등이 영향

주가 상승[+1.8%, 달러화 강세[+0.6%, 금리 상승[+32bp]

- 주가: 미국 S&P500 지수는 성장 둔화 우려 완화 등이 반영
유로 Stoxx600 지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0.2% 하락
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 등으로 매수 증가
유로화와 엔화가치는 각각 0.6%, 2.4% 하락
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추가 금리인상 전망 강화 등이 주요 원인
독일은 미국 채권시장과 유사한 이유로 21bp 상승

※ 원/달러 환율(주간) 0.9% 상승, 한국 CDS 상승

		3/25일	3/18일	전주말대비			3/25일	3/18일	전주말대비
주가	미국	4,543.1	4,463.1	1.79%	국채 금리 10y	미국	2.47%	2.15%	32bp
	유럽	453.55	454.60	-0.23%		독일	0.59%	0.37%	21bp
	중국	3,212.2	3,251.1	-1.19%	CDS 5y	한국	29bp	28bp	1bp
	일본	28,150	26,827	4.93%		중국	62bp	54bp	8bp
	한국	2,730.0	2,707.0	0.85%	위험 지표	EMBI+	536	539	-3bp
환율	달러지수	98.79	98.23	0.57%		VIX	20.81	23.87	-12.82%
	유로화	1.0983	1.1051	-0.62%		WTI유	113.90	104.70	8.79%
	엔화	122.05	119.17	-2.36%	원자재	구리	468.6	473.1	-0.94%
	위안화	6.3662	6.3612	-0.08%		금	1,958.3	1,921.6	1.91%
	원화	1,218.8	1,207.6	-0.92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,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3월 고용 및 2월 물가지표, 연준의 통화긴축 강화 유도 여부에 관심

- 금주 미국 3월 고용보고서(4/1일) 및 2월 PCE 물가(3/31일) 발표가 예정. 블룸버그에 따르면, 비농업부문 신규 고용 48.8만건, 연간 시간당 임금상승률 5.5%, 실업률 3.7%를 나타내 고용여건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
- 또한 PCE 물가도 2월에 전년동월비 6.4% 올라 다시 한 번 40년 만에 최고치 기록할 전망. 만일 이들 경제지표의 실제 결과가 시장 전망에 부합한다면, 이는 연준이 금리인상 폭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가능성
- 연준의 주요 인사들은 4월에 발표 예정인 3월 소비자물가 결과를 주목할 것으로 예상되나, 3월 고용보고서는 5월 FOMC 이전에 발표되는 마지막 고용보고서라는 측면에서 주의가 필요
- 블룸버그의 Anna Wong은 3월 고용보고서 및 물가지표가 5월 FOMC에서 0.5%p의 금리인상을 주장하는 연준 매파 인사들의 의사를 더욱 확고하게 만들 것으로 관측. 모건스탠리, 골드만삭스, Jefferies 등도 5월 0.5%p 금리인상을 예상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바이든 대통령, 억만장자에 대한 20% 부유세 신설 검토

- 바이든 대통령은 임금소득 뿐 아니라 주가 상승 등에 따른 미실현 이익 등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대해 최소 20%의 세금 부과를 추진할 전망. 백악관은 새로운 세법이 제정되면 조세 수입이 10년간 3600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산

■ 미국 재무장관,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경제의 둔화 전망. 미국 경제는 양호

- 옐런 장관은 이번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이 향후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. 다만 유럽 지역에서 주요 원자재가 원활하게 공급되고, 미국 소비자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
- 반면 미국 경제는 아직까지 취약하다는 징후를 나타내지는 않고 있다고 진단. 노동시장은 매우 강력하며 가계의 재정 상태도 양호하다고 평가. 또한 소비는 우수하고 세수 규모는 시장 예상을 상회할 수 있다고 기대

■ 러시아, 우크라이나와의 종합적인 협상 타결을 위한 진전은 더딘 상황

- 러시아의 메진스키 협상 대표는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 뿐 아니라 보다 종합적인 협약을 원하는데, 이는 단기간 내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고 언급

■ ECB 총재,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로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연결되지 않을 전망

- 라가르드 총재는 이번 전쟁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성장이 둔화될 수는 있으나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언. 가장 부정적인 시나리오에서 성장률은 금년 2.3%까지 하락하지만, 인플레이션도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

■ 독일 3월 Ifo 경기기대지수, 전월비 급락.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불확실성 증대 영향

- 해당 지수는 85.1로 전월(98.4) 대비 큰 폭 하락하면서 '20년 5월 이후 최저. 이번 결과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무역둔화, 에너지 시장 혼란, 인플레이션 심화, 경제성장 둔화 우려 등이 증폭되었기 때문

■ 중국 1~2월 공업부문의익, 전년동기비 5.0% 증가. 증가세 지속 여부는 불투명

- 이번 결과는 작년 12월(4.2%) 대비 증가율이 가속화된 것으로 정부의 경제성장 촉진 정책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추정. 하지만 최근 코로나 19 재확산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이 기업이익에 부정적

■ UNCATD, 신흥국의 부채 위험 증폭 가능성을 경고

-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심화로 신흥국 부채 위험이 증폭될 수 있다고 경고. 또한 금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(3.5%→2.5%)
- 한편 JP모건은 신흥국 국채에 '비중축소' 의견을 제시하고,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전과 비교하여 신흥국 채권가치가 대략 6~9% 하락했다고 설명. 에너지 및 식량 가격의 상승이 특히 신흥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진단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3/25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2월 잠정주택판매(전월비): -4.1%, 1월(-5.8%), 예상치(1.0%)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3/28 현지시각 기준)

- 영란은행 베일리 총재 강연, 미국 2월 상품 무역수지 및 도매재고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- **연준의 통화긴축, 경기둔화를 유발하지 않는 수준으로 시행될 필요 - 블룸버그**
(Fed's Best Hope Increasingly Looks Like a 'Semi-Hard' Landing)
 -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위해 통화긴축 기조를 강화. 또한 '24년에 인플레이션 억제와 실업률 하락을 동시에 달성할 것'이란 전망을 제시. 다만 일부 경제학자들은 통화긴축이 고용 여건을 악화시켜 경제성장을 둔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
 - 연준이 물가가 일정 수준 하락한 후에도 통화긴축을 지속한다면 경제는 성장 둔화에 그치지 않고 경기침체 국면에 진입할 우려. 이에 인플레이션 억제 과정에서 경기침체를 유발하지 않도록 통화정책의 면밀한 추진이 중요
- **유럽의 에너지 자립 추진,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경제 효과를 기대 - Financial Times**
(The case for joint European energy procurement is irresistible)
 - '70년대 국제유가 상승은 각국의 에너지 효율성 증대 노력 촉진 등 예상치 못한 긍정적 결과 초래. 이와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유럽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축소 노력도 장기적 측면에서 경제 관련 플러스 효과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
 - 에너지 안보 강화로 유럽은 향후 천연가스 재고 확대 및 에너지 가격의 안정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. 또한 유럽은 러시아 기업 가즈프롬의 독일 공급 제한 등과 같은 해외의 에너지 위협에도 기존의 전략적 지위 유지가 용이할 전망
- **미국 행정부, 재정적자 감축·고물가 해소 등을 위해 부자 증세 추진이 요구 - 블룸버그**
(Biden Should Tax the Rich to Shrink the Deficit)
- **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, 서방 국가들의 결속력 약화 초래할 가능성 - Financial Times**
(The west's agonising choices on Ukraine)
- **미국 대형주, 양호한 실적·채권가격 하락 등으로 안전자산 역할 대행 - 블룸버그**
(U.S. Big Cap Stocks Turn Into World's Top Haven as Risk Rises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jsjeong@kcif.or.kr